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길 주 현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개념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적 성향 중에서도 어떠한 특성이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애의 세부특성 각각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 결과에서 자기애의 세부 특성들이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을 바탕으로, 이후 자기애적 성향, 자기개념 명확성, 그리고 공격성의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중다 회귀분석 결과, 남학생은 자기애적 성향 중에서도 과시가, 여학생은 특권의식이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학생 집단의 경우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과시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흥미롭게도 자기애 성향 중 허영심과 공격성의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애, 자기개념 명확성, 공격성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2008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오경자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Fax : 02-365-4354 / E-mail : kjoh@yonsei.ac.kr

경쟁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신을 과시하려 하거나, 타인의 칭찬을 기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발견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자기애적 성격이라고 부르며, DSM-IV(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에서 이러한 성향이 지나쳐 일상생활에서 부적응적이며,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가 초래되는 임상적 집단을 자기애적 성격장애라 지칭한다. 이들은 자신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에 대한 끝없는 공상과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기애 성향을 다룬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자기애 성향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높은 분노나 공격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Baumeister, Smart와 Boden(1996)은 자아의 위협이 지각되었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이 강한 공격성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Papps와 O'Carroll(1998)의 연구에서는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반면, 자존감은 높지만 자기애 수준은 낮은 집단은 가장 낮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Rhodewalt와 Morf(1998)의 실험에서도 자기애적 성향자들이 실패경험 후 의미있게 더 많은 분노, 불안, 자존감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내의 서수관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도 자존감을 통제한 후 자기애 성향과 분노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애 성향이 높은 집단의 언어적 공격행동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런데 자기애가 단일한 개념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여러 특성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자기애적 성격척도(NPI; Raskin & Hall, 1979)의 경우, 개발 이후 자기애 개념을 이루고 있는 세부 구성요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석이 이루어졌다. Emmons(1984)는 자기애적 성격척도를 지도력(Leadership), 권위(Authority)/자기 몰두(Self-Absorption), 거만함(Arrogance), 자기 찬양(Self-Admiration)/우월감(Superiority)의 네 가지 구성요소로 분석하였다. 이후 Emmons의 연구를 바탕으로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에서는 과시(Exhibitionism), 특권의식(Entitlement), 착취성(Exploitativeness), 권위, 자기충족성(Self-Sufficiency), 허영심(Vanity), 우월감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가 추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자기애적 성향과 관련된 부적응적인 특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자기애의 세부적인 구성요소들을 다루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기애의 세부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애적 성격척도의 총점으로 측정된 전반적 자기애 수준을 바탕으로 분노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다룬 이전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였다(Bushman & Baumeister, 1998; McCann & Biaggio, 1989). 예를 들어, McCann 등(1989)의 연구에서는 자기애적 성격척도의 총점과 자기보고 형식의 Novaco 분노 척도(Novaco, 1994) 사이에 그 어떤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자기애의 여러 이질적 측면을 고려한 Watson과 Biderman(1993)의 연구에서는 Raskin 등이 분석한 자기애적 성격척도의 일곱 가지 구성요소 중 착취성과 특권의

식만이 전반적인 심리적 부적응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hite, Callahan과 Perez-Lopez(2002)의 연구에서도 특권 의식과 권위가 높은 분노 수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구체적으로 자기에의 어떠한 취약성이 분노나 공격성 같은 부적응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임상적 예측을 높이거나 치료적 함의에 있어 더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자기에와 공격성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았던 원인으로, 두 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요인에 대한 충분한 탐색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자기에 성향자가 자기개념에 대해 얼마나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노 수준에 중재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강일선, 2005; Stuke & Sporer, 2002). 자기개념 명확성(Self-concept clarity)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일관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개인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한다(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특히 부정적 피드백으로 인해 자기개념이 위협받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위협하는 대상을 깎아내려 자기상을 재구축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Bogart, Benotsch, & Pavlovic, 2004; Kernberg, 1975; Kohut, 1971, 1972; Millon, 1981).

자기 자신에 대해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힘든 수준의 과장된 지각을 보이는 자기에 성향자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는데, Stuck과 Sporer(2002)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에

성향자 중에서도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경우 더 쉽게 분노나 공격적 반응을 나타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기에 수준이 높음과 동시에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집단의 특성 분노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강일선, 2005). 따라서 자기에 성향자의 높은 분노나 공격성 수준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자기에란 여러 이질적인 특성들이 함축된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에의 세부특성 각각에 대해 동일하게 중재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 자기에 성향자의 높은 분노나 공격성 문제에 접근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권위, 과시욕, 우월감, 특권 의식, 착취성, 자기 충족성, 그리고 허영심 등 자기에의 일곱 가지 세부특성들 중에서 공격성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보완해 주리라 생각하였다.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에와 공격성의 관계에 중재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특히 자기에의 세부 특성 각각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347명(N=347)의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Y 대학교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모집되었다. 자료가 불충분한 18명과 Mahalanobis' Distance에 의한 9명의 극단치를 제거하고 총 320명(N=320)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남성 참가자는

122명(37.8%), 여성 참가자는 198명(61.9%)이었다.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 이후 심리학 교양 수업에 대한 가산점을 받았다.

측정도구

자기애적 성격척도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 Raskin & Hall, 1979).

이 척도는 개인의 자기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askin과 Hall(1979)이 DSM-III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이후 Raskin과 Terry(1988)가 주 성분 분석을 통해 40쌍의 문항으로 단축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한수정(1999)이 이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두 문장 중 자신과 좀 더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표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인 분석에서는 권위, 과시욕, 우월감, 특권의식, 착취성, 자기 충족성 그리고 허영심의 일곱 가지 요소들이 도출되었다(Raskin & Terry, 1988). 본 연구에서 자기애적 성격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6으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Self-concept Clarity, SCC; Campbell, 1990; Campbell et al., 1996).

자기개념 명확성은 개인의 자기 개념이 얼마나 명확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의되어 있으며, 내적으로 일관되며, 시간적으로 안정적인지를 의미한다.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Campbell 등이(1996) 개발한 것으로 처음에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문항분석을 거쳐 12문항의 검사로 축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개념 명확성 척

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3으로 신뢰로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판 공격성 척도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 Buss & Perry, 1992).

본 척도는 공격성을 측정하며, 문항 분석을 통하여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대감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나뉘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한 한국판 공격성 척도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두 척도의 합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공격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Cronbach's α)은 .81이었다.

분석 방법

설문지 응답 자료들의 전반적인 통계 분석을 위해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 분석 패키지(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13판이 사용되었다.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통해 자기애의 하위척도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고, 이후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애 하위척도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

주요 변인들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공격성 수준과, $t(317)=4.11$,

표 1.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변인 | 전체(N=320) | 남학생(n=122) | 여학생(n=198) | t |
|----------|-------------|-------------|-------------|----------|
| 공격성 | 33.05(6.95) | 35.02(6.50) | 31.81(6.96) | 4.11*** |
| 자기개념 명확성 | 38.49(7.08) | 39.59(6.73) | 37.74(7.15) | 2.29* |
| 자기애적 성격 | 17.93(7.25) | 16.93(7.30) | 18.47(7.12) | -1.85 |
| 권위 | 4.18(2.18) | 4.15(2.23) | 4.19(2.15) | -.17 |
| 자기충족성 | 1.83(1.37) | 1.92(1.33) | 1.77(1.38) | .95 |
| 우월감 | 3.11(1.44) | 2.96(1.46) | 3.20(1.42) | -1.44 |
| 과시 | 2.88(1.87) | 2.36(1.72) | 3.18(1.89) | -3.86*** |
| 착취성 | 1.78(1.23) | 1.63(1.25) | 1.86(1.20) | -1.64 |
| 허영심 | 1.51(1.04) | 1.21(1.02) | 1.68(1.02) | -3.98*** |
| 특권의식 | 2.64(1.48) | 2.70(1.45) | 2.60(1.51) | .62 |

주. ()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냄. * $p < .05$, *** $p < .001$

$p < .001$, 자기개념 명확성은, $t(317)=2.29$, $p < .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자기애적 특성 중 과시와, $t(317)=-3.86$, $p < .001$, 허영심은, $t(317)=-3.98$, $p < .001$, 여학생

집단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를 고려하여 이후 모든 분석에서 남녀를 구분하였다.

표 2에 따르면 남녀 전체에서는 자기개념

표 2. 전체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공격성 | | | | | | | | | |
| 2. 자기개념명확성 | -.07 | | | | | | | | |
| 자기애적 성격 | | | | | | | | | |
| 3. 권위 | .12* | .31** | | | | | | | |
| 4. 자기 충족성 | .03 | .34** | .41** | | | | | | |
| 5. 우월감 | .00 | .26** | .57** | .40** | | | | | |
| 6. 과시 | .15** | .14* | .55** | .24** | .49** | | | | |
| 7. 착취성 | .09 | .14** | .40** | .20** | .29** | .31** | | | |
| 8. 허영심 | -.03 | .08 | .28** | .08 | .35** | .45** | .18** | | |
| 9. 특권의식 | .22** | .05 | .53** | .25** | .39** | .35** | .28** | .21** | |

주. * $p < .05$ ** $p < .01$

명확성이 공격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자기개념 명확성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3의 남학생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자기개념 명확성과 공격성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표 4에 제시된 여학생 집단의 결과에서는 자기개념 명확성과 공격성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196)=-.24, p<.01$. 이러한 결

표 3. 남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공격성 | | | | | | | | | |
| 2. 자기개념명확성 | .14 | | | | | | | | |
| 자기애적 성격 | | | | | | | | | |
| 3. 권위 | .05 | .32** | | | | | | | |
| 4. 자기 충족성 | .01 | .26** | .42** | | | | | | |
| 5. 우울감 | -.02 | .23* | .57** | .32** | | | | | |
| 6. 과시 | .28** | .13 | .56** | .10 | .51** | | | | |
| 7. 착취성 | .06 | .18 | .53** | .18* | .45* | .38** | | | |
| 8. 허영심 | .11 | .02 | .30** | .04 | .34** | .43** | .23* | | |
| 9. 특권의식 | .17 | .11 | .51** | .28** | .52** | .42** | .36** | .20** | |

주. * $p<.05$ ** $p<.01$

표 4. 여학생 집단의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공격성 | | | | | | | | | |
| 2. 자기개념명확성 | -.24** | | | | | | | | |
| 자기애적 성격 | | | | | | | | | |
| 3. 권위 | .17* | .30** | | | | | | | |
| 4. 자기 충족성 | .01 | .37** | .39** | | | | | | |
| 5. 우울감 | .03 | .30** | .56** | .46** | | | | | |
| 6. 과시 | .16* | .18* | .56** | .34** | .46** | | | | |
| 7. 착취성 | .13 | .13 | .31** | .22** | .17* | .24** | | | |
| 8. 허영심 | -.03 | .16* | .28** | .13 | .34** | .42** | .13 | | |
| 9. 특권의식 | .24** | .00 | .54** | .23* | .32** | .33** | .23** | .23** | |

주. * $p<.05$ ** $p<.01$

과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남녀의 공격성 수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중다 회귀분석

자기애 하위차원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과시가 공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20)=.28, p<.01$, 여학생은 특권의식, $r(196)=.24, p<.01$, 권위, $r(196)=.17, p<.05$, 그리고 과시가, $r(196)=.16, p<.05$,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기애 성향 중

일부만이 공격성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먼저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를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남학생 집단에서 공격성에 대한 자기애적 성향의 주효과는 14.7%로 유의하였고, $F(7,114)=2.82, p<.05$, 그 중에서도 과시와, $\beta=.40, t=3.43, p<.01$, 우월감이 $\beta=-.27, t=-2.26, p<.05$,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 즉 남학생의 경우 자기애 성향 중 과시 성향이 강할수록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반면 우월감은 강할수록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 투입된 자기개

표 5. 남학생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 변인 | R^2 | Adj. R^2 | β | ΔR^2 | ΔF | df |
|------------------|-------|------------|---------|--------------|------------|--------|
| 1단계 자기애적 성격 | .15 | .10 | | .15 | 2.82* | 7, 114 |
| 권위 | | | -.17 | | | |
| 자기충족성 | | | .07 | | | |
| 우월감 | | | -.27* | | | |
| 과시 | | | .40** | | | |
| 착취성 | | | .04 | | | |
| 허영심 | | | .04 | | | |
| 특권의식 | | | .19 | | | |
| 2단계 자기개념 명확성 | .18 | .12 | .18 | .03 | 3.93 | 1, 113 |
| 3단계 상호작용 효과 | .26 | .15 | | .08 | 1.70 | 7, 106 |
| 권위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3 | | | |
| 자기충족성 X 자기개념 명확성 | | | .03 | | | |
| 우월감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5 | | | |
| 과시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3 | | | |
| 착취성 X 자기개념 명확성 | | | .03 | | | |
| 허영심 X 자기개념 명확성 | | | -.26* | | | |
| 특권의식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9 | | | |

주. * $p<.05$ ** $p<.01$

념 명확성은 2.9%의 추가 설명량을 보였으나, 그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학생의 자기개념 명확성 정도는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 여학생의 결과에서 공격성에 대한 자기애적 성향의 주효과는 9.6%로 유의하였다, $F(7,190)=2.89$, $p<.001$. 그 중에서도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 $\beta=.22$, $t=2.66$, $p<.01$. 즉 여학생의 경우 자기애 성향 중 특권의식이 강할수록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살펴본 자기개념 명확성은 6.4%의 추가 설명량을 보였으

며, 이는 유의미하였다, $F(1,189)=14.38$, $p<.001$. 다시 말해 여학생의 경우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을수록 높은 공격성 수준을 나타냈다.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확성의 주효과를 살펴본 후,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 두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표 5의 남학생 집단의 경우 3단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수 중 허영심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표 6. 여학생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 변인 | R^2 | Adj. R^2 | β | ΔR^2 | ΔF | df |
|------------------|-------|------------|---------|--------------|------------|--------|
| 1단계 자기애적 성격 | .10 | .06 | | .10 | 2.89** | 7, 190 |
| 권위 | | | .04 | | | |
| 자기충족성 | | | -.08 | | | |
| 우월감 | | | -.07 | | | |
| 과시 | | | .17 | | | |
| 착취성 | | | .07 | | | |
| 허영심 | | | -.14 | | | |
| 특권의식 | | | .22** | | | |
| 2단계 자기개념 명확성 | .16 | .13 | -.29*** | .06 | 14.38*** | 1, 189 |
| 3단계 상호작용 효과 | .20 | .14 | | .04 | 1.36 | 7, 182 |
| 권위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6 | | | |
| 자기충족성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1 | | | |
| 우월감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1 | | | |
| 과시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0 | | | |
| 착취성 X 자기개념 명확성 | | | .07 | | | |
| 허영심 X 자기개념 명확성 | | | .01 | | | |
| 특권의식 X 자기개념 명확성 | | | -.19* | | | |

주. * $p<.05$ ** $p<.01$ *** $p<.001$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 $t = -2.33$, $p < .05$.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기 위해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허영심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표시한 그래프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을 보면, 허영심이 높은 남학생은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허영심이 낮은 남학생은 자기개념이 명확할 때 공격성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자기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공격성이 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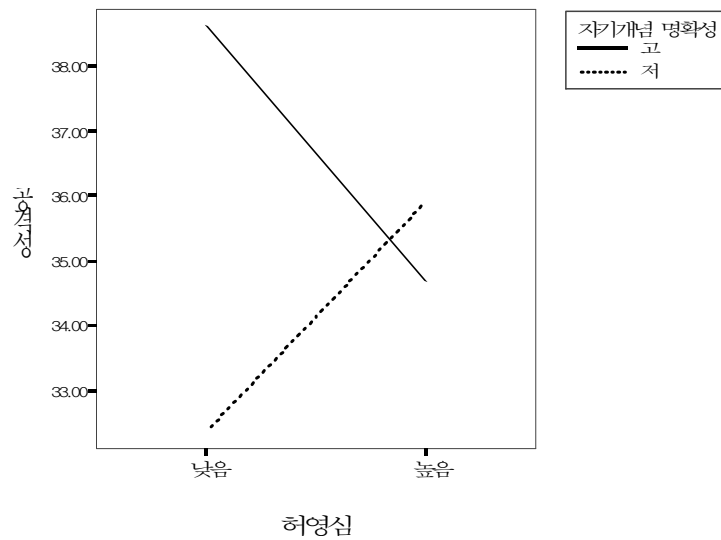


그림 1. 허영심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남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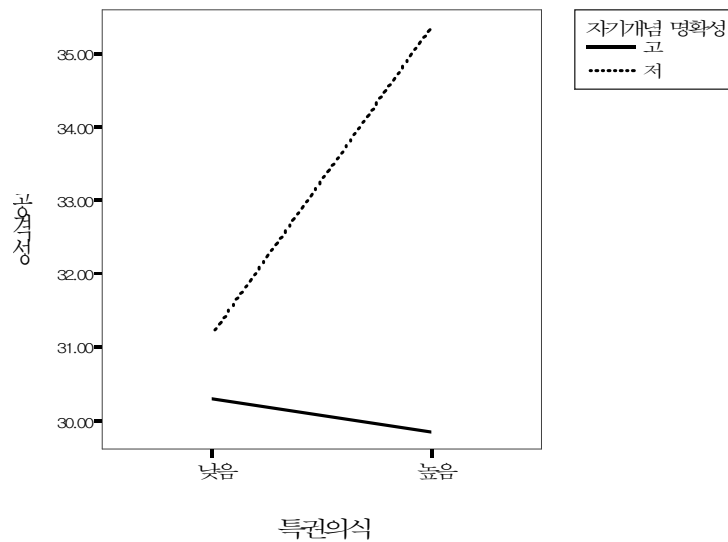


그림 2. 특권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이 여학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6에 제시된 여학생 집단 역시 3단계에서 자기애적 성향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결과 전체 설명량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 변수 중 특권의식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9$, $t = -2.26$, $p < .05$. 이러한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기 위해 상하위 30%를 기준으로 특권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그래프를 그려보았고 그것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를 보면, 여학생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은 경우 특권의식의 고저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개념 명확성이 낮은 경우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자기애의 어떠한 취약성으로 인해 높은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즉, 전반적인 자기애 수준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이전 연구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권위, 과시욕, 우월감, 특권의식, 착취성, 자기 충족성, 그리고 허영심 등 자기애의 세부특성 중에서 공격성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애의 세부특성이 공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효과를 갖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자기애의 세부특성 점수들이 남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남녀 집단을 구분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과시 성향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시란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은 경향을 의미하며, 특권의식은 권력(Power)이나 지배(Dominance)에 대한 욕구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Raskin & Terry, 1988).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의 특성 중에서 청소년기 비행과 같이 낮은 사회적 적응 수준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특권의식, 과시, 그리고 착취성의 세부특성을 부적응적 자기애로 분류하였던 이전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Barry, Chaplin, & Grafeman, 2006, Emmons, 1984; Raskin & Terry, 1988). 따라서 자기애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특히 과시와 특권의식이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애의 세부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애 성향 중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권의식이라는 특성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 역할과는 부합되지 않는 자기애적 성향이라 가정한 이전 연구들(Carroll, 1987; McCann & Biaggio, 1989; Tschanz, Morf, & Turner, 1998)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지배나 권력의 욕구가 높을 경우 사회로부터 비난이나 질책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손상된 자기개념을 회복하기 위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남학생 집단에서 우월감이 높은 것은 공격성과 부적응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우

월감이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능력을 지녔다는 인식 또는 자신감에 가깝다는 Raskin과 Terry(1988)의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우월감이 높은 경우 외부의 평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만큼 주변 환경에 의해 분노나 공격성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높은 분노나 공격성 같은 부정적 특성과 관련된 자기애적 성향과 더불어, 오히려 공격성 수준을 낮추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기애적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애의 세부특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여학생 집단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애적 성향 전체에 대해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애의 세부특성 중 특권의식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중재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공격성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특권의식에 대하여 자기개념 명확성이 중재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야심이 많고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높은 여성일지라도 자기개념이 확고할 경우 공격성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남학생 집단의 결과는 자기개념 명확성이 항상 적응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남학생 집단 역시 자기개념 명확성이 자기애적 성향 전체에 대해서는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애 세부특성 중 허영심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허영심 척도는 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감을 측정하고 있다. 허영심이 높은 남학생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에

따라 공격성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허영심이 낮은 집단은 자기개념 명확성이 높을 경우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다. 여기서 허영심 수준이 낮은 즉, 외모에 대한 관심이 낮은 남자들이란, 남성에게도 신체적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최근의 젊은 세대들보다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남성성을 중요시하는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집단의 사람에게 자기개념의 갈등이 없을 경우, 결국 공격성에 대한 태도에도 그러한 성향이 반영되어 오히려 높은 공격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허영심이 낮으면서 자기개념 명확성은 낮은 집단은, 남성성에 가치를 두면서도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공격성에 대해서도 자기개념이 명확한 집단보다 조금 더 갈등이 있을 것이며, 소극적으로 행동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허영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기개념 명확성에 큰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공격성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대학생이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 집단에까지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자기애적 특성과 자기애적 성격장애 집단이 어떠한 차이를 보일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대 대학생 시기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을 확고히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자기개념이 확고해진 성인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종속변인인 공격성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격성이란 본 연구에서 측정한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 이외에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는 방법과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Crick, 1995).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애적 성격 하위 척도 각각이 공격성 이외에 다른 어떠한 심리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권위와 같이 공격성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애적 성향의 경우 자기애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자기애의 세부 성향 중 자신감이나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같이 삶에 적응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일선 (2005). 자기애와 자기 개념의 명확성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 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87-501.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관련 인지 특성.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Barry, C. T., Chaplin, W. F., & Grafeman, S. J. (2006). Aggression following performance feedback: The influences of narcissism, feedback valence, and comparative standar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77-187.
- Baumeister, R. F., Smart, L., & Boden, J. M. (1996). Relation of threatened egotism to violence and aggression: The dark side of high self-esteem. *Psychological Review, 103*, 5-33.
- Bogart, L. M., Benotsch, E. G., & Pavlovic, J. D. (2004). Feeling superior but not threatened: The relation of narcissism to social comparis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5-44.
- Bushman, B.,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219-229.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mpbell, J. D. (1990). Self-esteem and clarity of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83-549.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arroll, L. (1987). A study of narcissism, affiliation, intimacy, and power motives among students in business administration. *Psychological Reports*, 61, 355-358.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The role of intent attribution, feeling of distress, and provocation typ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313-322.
- Emmons, R. A. (1984). Factor analysis and construct validity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291-3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11-17.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ohut, H. (1971). *The analysis of the self*. New York: Interpersonal Universities Press.
- Kohut, H. (1972). Thoughts on narcissism and narcissistic rag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7, 360-400.
- McCann, J. M., & Biaggio, M. K. (1989).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and self-reported anger. *Psychological Reports*, 64, 55-58.
- Millon, T. (1981). *Disorders of Personality: DSM III: Axis II*. New York: Wiley.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man (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pps, B. P., & O'Carroll, R. E. (1998). Extreme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and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4, 421-438.
- Raskin, R.,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Stuck, T. S., & Sporer, S. L. (2002). When a grandiose self-image is threatene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s predictors of negative emotions and aggression following ego-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70, 590-532.
- Tschanz, B. T., Morf, C. C., & Turner, C. M. (1998).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narcissism: A multi-sample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Sex Roles*, 38, 863-870.
- Watson, P. J., & Biderman, M. D. (1993).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s, splitting,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1, 41-57.
- White, T. H., Callahan, K. L., & Perez-Lopez, M. (2002). Narcissism and anger: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correlates. *Psychological Reports*, 90, 871-875.
- 원 고 접 수 일 : 2008. 2. 22.
1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8. 6. 11.
2차 수정원고접수일 : 2008. 8. 27.
게 재 결 정 일 : 2008. 9. 7.

The Effect of Narcissistic Features and Self-Concept Clarity on Aggression

Joo Hyun Kil

Kyung 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1)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components of narcissism and aggression, and (2)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ncept clar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rcissistic features and aggression. A total of 347 university students enrolled in introductory psychology courses completed questionnaires that assess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and aggression.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the narcissistic features examined, Exhibitionism and Entitlement had significant main effects on aggression in the male and female groups, respectively; (2) self-concept clarity was significantly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level of aggression in the female group; and (3)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narcissistic features and self-concept clarity to explain aggression beyond narcissism and self-concept clarity alone. In particular, self-concept clarity moderated the effect of Entitlement on aggression in the female group.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Narcissism, Self-concept clarity, Aggression